

자들은 1936~38년의 대테러 이전, 특히 1930년대 초에는 스탈린이 정치국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스탈린 독재는 불안정한 “과두정”이었다. 정치국원들은 혁명과 혁명 직후의 국가 건설에 참여한 고참 볼셰비크로서 아직은 권위가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정부 내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각 정치국원들은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자원을 통제했고, 수많은 실무적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각자 일단의 충성스런 부하들을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거느리고 있었다. 스탈린은 물론 정치국원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업무의 해결을 가져오기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낳는 경향이 있었다. 여하튼 스탈린은 각 정치국원들의 이러한 “세습 영지”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하면서 그들의 “제도적 이기주의”(ведомственность)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Khlevniuk 2005: 109-110). 실제로, 스탈린이 이들의 권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930년의 제16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원들과 1934년의 제17차 당 대회에 의해 선출된 정치국원들의 인적 변화를 볼 때, 이 4년 동안 후보위원까지 포함하여 약 7%만이 교체되는 데 불과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Rigby 1986: 314).²⁰⁾

하지만 이러한 과두정은 대테러가 시작될 무렵 거의 종언을 고하였다. 1936~38년의 노멘클라투라에 대한 악명 높은 대규모 숙청은 과두정을 파괴시켰다. 실제로 스탈린은 대테러 동안 쿠이비셰프, 코시오르(С. В. Косиор) 같은 정치국원 수 명을 처형하였고 일부 위원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제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의 원천은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 같은 집단적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라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 같은 정규적인 국가 보안 기관들이 되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도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정치국은 1936년까지 정기적인 회의가 점점 감소하면서 1937년부터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19) 1930년대 정치국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Хлевнюк(1996), сс. 285-287을 보라.

20) 노골적인 주요 “우파” 정치적 반대파로서 제16차 당 대회가 있는 지 약 5개월 후 면직된 리코프(А. И. Рыков)는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1936년경에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집되지 않았고 세 달 동안은 한 번도 소집되지 않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많게는 한 달에 10번 이상, 적게는 너댓 번을 소집한 1930년대 초반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었다.²¹⁾ 대신 정책 결정은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소집되는, 수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지도자들의 비공식적 내부 그룹(이너 서클, 일부는 정치국원들이고 일부는 그러지 않는데)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내부 그룹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정치국의 결의안으로 외부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내부 그룹도 스탈린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의 개인적 결정에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정치국의 기능이 소멸함에 따라 스탈린의 권력은 거의 무소불위가 되어갔다(Khlevniuk 2005: 110, 114).

하지만 다른 학자는 1930년대 후반은 물론이고 1930년대 전반기에도 집단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이러한 정치국이 과연 존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다. 즉 그에 따르면 1930년대 전반기 이전도 포함하여 정치국은 제도로서의 집단 기관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정치국은 개인과 그룹의 결정 관행을 감추어주는 외관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 정책 결정은 거의 언제나, 심지어 레닌 시절에도 최고 지도자와 몇몇 고위 측근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1936년 이전과 이후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으며, 1936년 이후에 관찰되는 제도로서의 정치국의 소멸은 원래부터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던 정부 기구가 형식적으로 그 기능이 멈춘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부 연구자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스탈린의 개인적 권력이 절대 권력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크기가 큰 서방 국가에서 흔히 보이듯이 국가의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통치 기능의 “근대화” 때문에 발생하였다. 즉 국가의 업무가 폭증하는 속에서 통치자는 모든 문제를 통괄하는 번거로운 공식적 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언제나라도 소집 가능한 순발력 있는 전문화된 비공식적 모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방 국가들 중 1980년대 대처 수상 시절 하의 영국 정부처럼 정부와 경제의 크기가 큰 나라들

21) Хлевнюк(1996), с. 288의 표 참조.

에서 소련의 정치국에 해당하는 내각의 전원회의가 그렇게 빈번하게 열리지 않았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 동안 스탈린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은 스탈린의 승인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 수많은 정책들이 스탈린 없이 결정되었다. 스탈린의 부관들은 군대의 보급 문제나 고위 인사 문제, 일부 주요 경제 문제 등 상당히 중요한 결정에서 주도권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정치국원들 외에도 국가의 제도들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즉 기술 관료들과 경영진들은 언제나 체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스탈린 시기 동안 각급 관료들은 자기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인민위원, 계획가, 통제 기관, 지역 당 조직 등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자신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서로 투쟁하였다. 스탈린은 이러한 투쟁들을 조정하는데 거의 언제나 실패하였다(Getty 2005: 83-107).²²⁾

이렇듯 1930년대 동안 스탈린 독재 권력의 작동 기제가 본질적으로 질적 변화 없었다고 할지라도 1936년 대테러 이후 그의 개인적 권력이 훨씬 강화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41년 6월 22일에 불가침 조약을 위반하고 독일이 소련을 전격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독소전쟁은 이러한 스탈린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개전 몇 주 내에 그는 막대한 권력을 수중에 장악하였다. 원래 가지고 있던 총서기와 각료회의 의장 직 외에도 전쟁 수행 노력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 방위 위원회(ГКО)의 위원장, 소련군 최고 사령관, 국방 인민위원, 그리고 개전 다음 날 설치된 최고 사령부(Ставка)의 의장도 8월까지의 역임하게 되었다(McDermott 2006: 125). 이렇게 하여 정부와 군 모두를 직접 관리하게 된 스탈린은 전쟁 수행 노력 전반에 대해 직접 개인적인 통제에 들어갔다.

22) 스탈린의 정책 결정 독점 정도와 관련하여 Davies(2005), pp. 121-139도 참조할 것. 이 글에서 데이비스는 스탈린이 곡물 문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농업 문제에는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지만, 가축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곡물 조달이 증대되면 사료로 쓸 곡물의 양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축산물의 증대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이런 개인적 권력을 이용하여 전쟁 초기인 1941년과 1942년 동안 소련군의 전략적 결정에 깊이 관여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²³⁾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탈린의 개입이 소련군의 초기 패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데 동의한다. 군사 참모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고집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모스크바를 위협에 빠뜨린 것은 군사적 비전문가로서 스탈린의 무능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전략적 후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무모한 태도도 소련군에 큰 희생을 불러 일으켰다.²⁴⁾ 한 러시아인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그의 명령은 얼마간 충동적이고 오류에 빠져 있었으며, 피상적이고 부당하였다”(Volkogonov 1991: 419). 그러나 군사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이러한 태도는 1942~1943년 겨울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분기점으로 일정한 변화를 겪었다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잇단 패전에 충격을 받은 그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고 대신 참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 참모들은 독자적인 작전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오버리 2003: 233-234, 260). 이런 태도 변화는 소련군이 궁극적으로 독소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한 요인이 되었고,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총체적으로 “스탈린은 ... 복잡한 전략 및 병참 분야를 점차 습득하였다. ... 어떤 수단을 썼던 간에 스탈린은 소련 정부의 단결을 보장하였고, 정부가 나치를 격퇴하는 데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소련의 승리에 대한 스탈린의 기여는 그의 선전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것이었다”(Barber and Harrison 1991: 55).²⁵⁾ 이리하여 초기의

23) 예를 들어 전략적 결정을 둘러싼, 참모총장 주코프와 스탈린의 충돌에 대해서는 Kuromiya(2005), pp. 155-156을 보라.

24) 군사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위해서는 Bonwetsch(1997), pp. 185-207을 볼 것.

25) 스탈린과 함께 독소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코프도 다음과 같이 스탈린의 군사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나[주코프]는 그[스탈린]가 전선의 작전을 조직하고 전선의 병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충분히 숙지한 달인이었다고 주저 않고 말할 수 있다.

대비극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상황의 반전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 이미지는 그 후 스탈린이 “대조국 전쟁”에서 조국을 구한 위대한 최고 지도자로 소련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스탈린체제 절정기”로 알려져 있다. 독소전쟁의 승리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스탈린은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철옹성의 권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개인적 독재는 최고조에 올랐고, 대신 정치적 기관들은 상호 투쟁 속에 자신들의 이해를 각자 추구하는 바람에 통합력을 상실함으로써 스탈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평가에 의문을 표명한다.

우선 스탈린은 전쟁 이후 나이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1946년 각료회의로 개칭된 인민위원부회의는 경제 문제에 대해 거의 배타적인 통제권이 주어졌고 노멘클라투라 임명 같은 일부 정치 문제는 중앙위원회 내의 다른 기관에 맡겨졌다. 스탈린은 1948년 레닌그라드 지역의 당원과 정부 관리들을 대거 숙청한 “레닌그라드 사건”처럼 필요하다면 폭력에 의존할 태세가 여전히 되어 있었지만, 매일매일의 결정에 대한 개입은 가능한 자제하였다. 이러한 스탈린의 일상적 정책 결정으로부터의 후퇴는 1936년 이전의 대테러 이전처럼 통치 행위에 있어서 정치 제도들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1950년부터 정치국은 스탈린이 장기적으로 부재할 경우 이런 행태를 잘 보여주었다. 정치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집단지도 체제 기관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각료회의 하의 주요 기관들의 행태는 집단 지도 체제의

그는 이 원리를 철저히 통제하였고 중요한 전략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는 뛰어난 최고 사령관이었다.” Radzinsky(1996), p. 487에서 재인용. 1990년대에 러시아인 연구자들이 출간한 주요 스탈린 전기 중의 하나인 라진스키의 이 책은 전거가 의심스런 주장에 바탕을 두고 극단적으로 스탈린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가공의 전기로 평가 받고 있다. Litvin(2005), p. 33을 볼 것.

확립에 더욱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50년 4월에 신설된 “각료회의 간부회
뷰로”는 인적 구성이 정치국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스탈린이 항상 이끈 정치국과
는 달리 스탈린의 참여 없이 업무를 심의하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스탈린 국가
통치 행위의 중심은 점점 이러한 기관들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점에
서 스탈린의 무한한 권력은 1945년 이후 실질적으로 악화되면서 통치의 과두정
적 요소를 계속 재생산하였다. 이 과두정적 요소야말로 1953년 3월 예기치 않
게 스탈린이 죽고 나서도 흐루시초프(Никита Хрущев)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곧 바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Khlevniuk 2005:
118-119).²⁶⁾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독재자
스탈린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의 후계 체제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
었던 셈이다.

6. 모순에 찬 인간 스탈린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자들 사이의 여러 논점들을 중심으로 스탈린이라는
20세기의 유례없는 독재자의 생애를 간략히 기술해보고자 하였다. 그의 일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은 다른 모든 독재자들과 마
찬가지로 “위대한 인간” 아니면 “악의 화신”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만 파악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성격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그는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
러시아인으로서 활약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루지아인으로서 획득했던 인성적 특
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레닌을 자신의 영웅으로 추앙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그에게 과감히 도전하는 대담성을 보여주었다. 독재자가 된 뒤에는 절대적인 권
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주변의 동료들을 의심하였다. 나아가 한 나라의 지

26) 전후의 스탈린과 정치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Gorlizki(2001), pp. 291-312도 참조하라. 이
흥미로운 글에서 고를리츠키는 스탈린 하에서 하나의 정치국이 아니라 다수의 정치국이
존재했으며, 그 중에 “스탈린이 없는 정치국”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이와 관련하여 Gorlizki and Khlevniuk(2004)의 제4장도 볼 것.

도자로서 국가의 권력 구조를 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분화시키면서도 정책 결정은 소수의 비공식 그룹에 의존하였다. 어떤 정책은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결정하였으나, 많은 정책들은 부하들에게 완전히 위임하면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스탈린의 행동과 성격은 지면상 다루지 못한 다른 사건에서도 확연히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가령 1939년 8월 전격적으로 체결된 역사적인 독소 불가침 협정은 그가 현실정치(Realpolitik)와 사회주의에의 헌신이라는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이슬이슬하게 줄을 탄 결과였다.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았고, 따라서 소련과 이들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승자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일국 사회주의론을 원칙적으로 견지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세계 혁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들 국가를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 붕괴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기는커녕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련군을 근대화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그는 현실적 실용주의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든 파시즘 국가든 관계없이 서방 어느 자본주의 국가와도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나치즘에 맞선 서방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즉각 히틀러와 불가침 조약을 맺는 쪽으로 급선회한 이유이다.²⁷⁾

스탈린이 기반을 닦은 소련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의 뒤편 길로 사라진 지 십수 년이 지났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스탈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그의 진면목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느낌이다. 그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의 일생을 분명하게 밝혀줄 완성된 전기는 궁극적으로 씌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듯이 바로 스탈린 자신이 언제라도 상반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양면적이고 모호한 태도와 행동을 인생의 고비마다 보여 왔기

27) 이 점에 대해서는 McDermott(2006), pp. 117-118을 참조할 것.

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그는 지금처럼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혹적인” 인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 도이처, I.(1972), 정홍진, 유완식 공역, 『스탈린』, 서울: 한림출판사. [원제: Isaac Deutscher(1961), *Stalin: A Political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서비스, R.(2007), 로버트, 윤길순 옮김, 『스탈린, 강철 권력』, 서울: 교양인. [원제: Robert Service(2004), *Stalin: A Biograph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오버리, R.(2003), 류한수 옮김,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서울: 지식의 풍경. [원제: Richard Overy(1998), *Russia's War: A History of the Soviet Effort, 1941~1945*, London: The Penguin Press]
- 톰슨, J. M.(2004), 김남섭 옮김,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서울: 사회평론. [원제: John M. Thompson(1996), *A Vision Unfulfilled: Russia and the Soviet Union in the Twentieth Century*, Lexington: D. C. Heath and Company]
- Громан, Ш.(2007년 3월 1일 인용), “Как Москву чуть не переименовали,” <http://www.languages-study.com/berlin/stalinodar.html>
- Островский, А. В.(2004), *Кто стоял за спиной Сталина*, Москва-Ст. Петербург: Центролиграф МиМ-Дельта.
- Спирин, Л. М.(1990), “Когда родился Сталин: поправка к официальной биографии,” *Известия*, 25 июня.
- Сталин, И.(1953a), *Сочинения*, Том. 4, Москва.
- Сталин, И.(1953b), *Сочинения*, Том. 8, Москва.
- Троцкий, Л.(1985), Ю. Г. Фельштинский, ред., *Сталин*, том I, Benson Vermont: Chalidze Publications.
- Хлевнюк, О. В.(1996), *Политбюро: Механиз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в 1930-е годы*. Москва.

- Barber, J. and Harrison, M.(1991), *The Soviet Home Front, 1941-1945: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in World War II*, London: Longman.
- Bonwetsch, B.(1997), "Stalin, the Red Army, and the 'Great Patriotic War'," in Ian Kershaw and Moshe Lewin, eds., *Stalinism and Nazism: Dictatorships i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5-207.
- Cohen, S. F.(1980),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A Political Biography 1888~193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niels, R. V.(1972), "The Struggle With the Right Opposition," in Robert V. Daniels, ed., *The Stalin Revolution: Foundations of Soviet Totalitarianism*, Lexington, MA: D. C. Heath and Co., 22-39.
- Davies, R. W.(1989), *Soviet History in the Gorbachev Revolu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Davies, R. W.(1997),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New York: St. Martin's Press.
- Davies, R. W.(2005), "Stalin As Economic Policy-Maker: Soviet Agriculture, 1931~1936,"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139.
- Getty, J. A.(2005), "Stalin As Prime Minister: Power and the Politburo,"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107.
- Gorlizki, Y.(2001), "Stalin's Cabinet: The Politburo and Decision Making in the Post-war Years," *Europe-Asia Studies*, Vol. 53, No. 2, 291-312.
- Gorlizki, Y. and Khlevniuk, O.(2004),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ris, J.(2005), "Stalin As General Secretary: The Appointments Process and the Nature of Stalin's Power,"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82.
- Khlevniuk, O. V.(2005), "Stalin As Dictator: The Personalization of Power,"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08-120.
- Kuromiya, H.(2005), *Stalin: Profiles in Power*, Harlow: Pearson Longman.
- Layton Jr., R. V.(1983), "Socialism in One Country," in Joseph L. Wiczynski,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 35, Gulf Breeze: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80-84.
- Lewin, M.(1968), *Lenin's Last Struggle*, London: Faber and Faber.
- Litvin, A.(2005), "Stalin's Biography," in Alter Litvin and John Keep, *Stalinism: Russian and Western Views at the Turn of the Milleniu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2-47.
- McDermott, K.(2006), *Stalin*, Palgrave.
- McNeal, R.(1984), "Stalin, Iosif Vissarionovich," in Joseph L. Wiczynski, ed., *The Modern Encyclopedia of Russian and Soviet History*, Vol. 37, Gulf Breeze: Academic International Press, 63-72.
- Pomper, Ph.(1990), *Lenin, Trotsky, and Stalin: The Intelligentsia and Pow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dzinsky, E.(1996), *Stalin: The First In-depth Biography Based on Explosive New Documents from Russia's Secret Archives*, New York: Doubleday.
- Rieber, A. J.(2001), "Stalin, Man of the Borderland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06, No. 5, December, 1651-1691.
- Rieber, A. J.(2005), "Stalin As Georgian: The Formative Years,"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44.
- Rigby, T. H.(1986), "Was Stalin a Disloyal Patron?," *Soviet Studies*, Vol. 38, No. 3, July, 311-324.
- Smith, J.(1998), "The Georgian Affair of 1922: Policy Failure, Personality Clash or Power Struggle,"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3, May, 519-544.
- Smith, J.(2005), "Stalin As Commissar for Nationality Affairs,"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5-62.
- Suny, R. G.(1972), "A Journeyman for the Revolution: Stalin and the Labour Movement

- in Baku, June 1907-May 1908," *Soviet Studies*, Vol. 23, No. 3, January, 373-394.
- Suny, R. G.(1988), *The Making of the Georgian N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Suny, R. G.(1991), "Beyond Psychohistory: The Young Stalin in Georgia," *Slavic Review*, Vol. 50, No. 1, Spring, 48-58.
- Tucker, R. C.(1973), *Stalin As Revolutionary, 1879~1929*, New York: The Norton Library.
- Ulam, A. B.(1989), *Stalin: The Man and His Era*, Boston: Beacon Press.
- van Ree, E.(2005), "Stalin As Marxist: The Western Roots of Stalin's Russification of Marxism," in Sarah Davies and James Harris, eds., *Stalin: A New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9-180.
- Volkogonov, D.(1991), *Stalin: Triumph and Tragedy*, Rocklin: Prima Publishing.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28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From a Georgian Revolutionary to the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Myths and Truths of Stalin

Kim, Namsub

This paper aims to reexamine Stalin as a Bolshevik revolutionary and the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using recent researches about his biography which revise the general images of his life. As many scholars show on the basis of primary sources including recently declassifying archival materials, Stalin was a contradictory and complicated person, who can not be judged simply as “a great man” or “an incarnation of evil.” Stalin can not abandon Georgian identity, even though he wanted to be a Russian. He had the courage to challenge Lenin if he needed, while he worshiped Lenin as his hero. He was always doubtful of those close to him, even after he obtained autocratic power to condemn them to death if he wanted to. Moreover, he depended on informal “inner circle” consisting of a few people when he had to make a decision, but, on the other hand, he continued to decentralize the structure of government formally. He personally decided on some policies, but he did not even look at many other policies, leaving them in the hands of his subordinates.

In this respect, a final version of Stalin’s biography is not completed,

although many scholars, Russian and Western, have attempted to reevaluate his entire life in earnest particularly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it does not seem to be written even after all the materials concerning him are available. It is because Stalin himself showed ambivalent and unclear attitudes and actions at every crucial moment of his life, which make possibl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t any time. Thus, Stalin will remain “a fascinating man,” attracting the attentions of many biographers in the future as before.